

초중등교육과정에 포함된 예비부모교육 내용 분석: 한국, 미국,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한진주¹⁾ 윤재희²⁾

요약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정에 포함된 예비부모교육 내용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국내외 교육과정을 비교했다.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유사성을 가진 한국과 미국 뉴욕주, 영국 잉글랜드, 호주 초중등교육과정을 준거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첫째, 국가별 교육과정에는 발달과 가족, 관계, 건강(보건), 성 교육 등 예비부모교육에 해당하는 교과가 있었다. 둘째, 국가별 교육과정의 예비부모교육 관련 내용은 초등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유사한 영역과 범주로 반복됐다. 셋째, 국가별 교육과정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예비부모교육 유형은 성발달을 포함한 '자기 이해'와 가족의 가치, 건강한 가족관계, 다양한 가족 유형 등의 내용인 '가족의 이해'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관계를 파악하여 대처하는 '관계 간 폭력과 예방'이다.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정을 활용한 예비부모교육의 가능성을 재확인했으며,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일부 내용의 편성 시기 조율과 범위 개선을 시사점으로 도출했다.

주제어: 예비부모교육, 국가 교육과정 내용 분석, 가정과(科) 교육과정, 국내외 초중등교육과정

I. 서론

부모는 자녀에게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다. 자녀가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Sherr, Skar, Clucas, et al., 2014). 부모는 자녀가 안전하게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적절한 영양과 휴식

* 이 논문은 국가인원위원회의 「2021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일부를 수정·확장한 것이며, 논문 내용은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음

1) 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2) 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발달을 지원한다. 그리고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반응적이고 일관되게 상호작용하는 부모는 어린 자녀의 정서와 사회적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Howe & Zimmer-Gembeck, 2022). 부모는 자녀의 언어 및 인지발달을 위한 가장 근접한 환경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개별적 특성은 영유아기 자녀의 자아발달과 자아존중감 형성에도 밀접한 요소로 보고된다(김용자·유미숙, 2004). 하지만 부모 역할이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상황에 적합한 역할을 계속 요구받는다. 이 때문에 과거와 같이 대가족의 지원을 받기 힘든 현대의 부모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기도 한다(김정미, 2004; 류수민·이연선·이소민 외, 2014; 박선미, 2016; 윤미경·민선혜·김미숙 외, 2019). 그럼에도 부모의 기질과 성격, 자존감, 양육효능감 등의 개별 특성과 양육 상황이 주는 스트레스 대처 능력 등은 성장하면서 포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므로(김은설·최윤경·조혜주 외, 2010; 이경하·서소정, 2009), 부모교육은 부모가 되기 전부터 예비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비부모교육은 부모가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부모됨에 대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가르치는 부모교육의 한 유형이다. 예비부모교육은 대상과 내용 범주에서 일반적 부모교육과는 차이가 있다. 예비부모의 대상은 결혼을 통해 자녀 양육을 준비하는 이들과 결혼 전의 청년, 학생인 청소년까지 다양하다. 출산 이전의 부부와 결혼적령기의 청년, 대학생, 중고등학생, 10대 미혼 부모 등이 포함된다(김은설·최윤경·조혜주 외, 2010; 김정미, 2004). 내용 측면에서 예비부모교육은 일반적인 부모교육보다 넓은 범주를 다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여성가족부(2016)의 자료를 참고하면, 예비부모교육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과 함께 자신과 가족, 타인에 대한 이해가 강조되는 교육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성 문화가 개방적으로 변함에 따라 예비부모교육은 공적 기관에서 이른 시기에 시작되고 있다. 특히 학교는 다수의 사람에게 예비부모교육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경로이다. 김은설과 최윤경, 조혜주(2012)는 예비부모교육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생 다수는 고등학교 학교 수업에서 ‘임신과 출산, 가정의 구성과 부모 역할’ 등의 내용을 학습한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녀 출산과 발달, 양육 등의 기초적인 부모교육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정미(2004)는 우리나라 대학생 예비부모에게 요구되는 내용과 방법을 지식, 기술, 태도 측면으로 조직해 한 학기 동안 대학 교육에 적용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학생 예비부모교육은 지식과 태도 면에서 학생의 부모되기 개념과 자질을 긍정적으로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국외에서도 학교는 부모가 된 10대에게 양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업 중도 탈락

률을 낮추고 아동학대 등 역기능적 가족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이다. 미국 남서부 지역 학교에서 예비부모교육 프로젝트를 실시한 Georgiana(1997)는 청소년들이 예비부모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부모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공립 학교 교육과정에 양육을 위한 물리적 지원과 양육 실습 등 실용적인 내용을 제공한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 부모와 교사, 지역 보육센터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Amin과 Sato(2004)는 미국 볼티모어의 청소년 부모에게 제공된 학교 기반 대안적 종합 프로그램의 영향을 평가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제공된 성 교육 중심의 예비부모교육으로 미래 가족과 임신, 출산에 대한 사전 계획을 통해 학생의 행동 범위를 결정하도록 도왔다.

교육과정을 학생이 배워야 하는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볼 때, 예비부모교육과정은 예비부모가 알아야 하는 기초적인 내용이 체계화된 것이다. 현재까지 초중등교육과정에 '예비부모교육과정'이 별도로 개설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예비부모교육과 관련되거나 연계될 수 있는 교과목이 편성될 수 있다(남민우·이운지, 2017; 정순화, 2017; 지은혜, 2019; 최충명, 2014; Ekeng, Ekanem, & Esien, 2014; Salami, 2017). 청소년 임신률이 높은 나이지리아에서는 중등학교의 생물 교과(biology curriculum)를 통한 예비부모교육을 제안한 바 있다(Salami, 2017). 또 우리나라 중학교의 기술가정, 사회, 도덕, 체육, 보건 등과 고등학교의 기술가정, 생활과 윤리 등의 교과에도 예비부모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남민우·이운지, 2017; 정순화, 2017).

초중등교육과정에 포함된 예비부모교육의 내용 유무와 활용 정도를 보여준 이상의 연구는 학교의 예비부모교육 가능성을 증명해준다. 그러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에 포함된 예비부모교육 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는 예비부모교육의 방법적 다양화와 내용적 심화를 꾸준히 지적해왔다(김수경, 2018; 김은설·최윤경·조혜주 외, 2010; 남민우·이운지, 2017; 노희연, 2017; 정순화, 2017; 지은혜, 2019; Dudleya, Crowderb, & Montgomery, 2014). 초중등교육과정이 직접적인 예비부모교육을 목적으로 개발된 것은 아니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교육과정에 포함된 예비부모교육의 시기와 범위 등이 시의적절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내외 초중등교육과정에 포함된 예비부모교육 내용을 분석(content analysis)하여 국가 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은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정에 포함된 예비부모교육 관련 내용이 편성되는 시기와 내용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얻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교육과정 개발 목적 및 교육 실천 체계를 가지고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과 영국, 호주의 초중등교육과정을 검토했다(홍원표·이근호·이은영, 2010). 국가 간 교육 및 문화의 차이를 고려할 때 결과를 단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국가 수준에서 다수의 학생에게 제공하는 예비부모 관련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또 국외 초중등교육과정에 포함된 예비부모 관련 내용이 제시되는 시기와 범위를 확인하여 우리나라 학교교육을 통한 예비부모교육의 타당성과 개선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간 비교의 가치가 있다.

연구문제 1. 국가별 초중등교육과정에 포함된 예비부모교육 내용(과목, 영역, 하위범주, 세부내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국가별 초중등교육과정에 포함된 예비부모교육 내용의 편성 시기와 내용 범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분석 대상은 한국 2015 개정 초중등교육과정과 뉴욕주 학습 표준 및 교육과정(New York state education standards and curriculum), 영국 잉글랜드 국가 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호주 교육과정(Australian curriculum 8.4)이다.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첫째, 모두 역량 중심의 공통 교육과정을 개발 및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량 중심 교육이란 교육 목적이 학습자의 지식 습득에서 행동 변화로 바뀐 최근 교육의 흐름이다. 국제화에 따른 세계적인 교육 개혁은 국가가 핵심적인 공통 역량을 선정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으로 나타나며(진의남·유창완·장근주 외, 2015; Sahlberg, 2010; Savage & O'Connor, 2015), 이는 분석 대상 교육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우리나라 실과 및 기술가정과(科) 교육과정은 실천적문제해결능력과 생활자립능력, 관계지향능력을 교과 역량 요소로 삼고 있으며(이근호·이병천·가은아 외, 2015; 이은영, 2016), 호주 교육과정 내 가정 관련 교육과정은 문해력, 산술능력, 정보통신기술능력, 비판적창의적사고능력, 윤리적이해능력, 개인및사회적능력, 다문화이해능력 등 7가지 일반적 역량을 중심으로 개발됐다(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2015). 영국과 호주에서는 한국보다 일찍 학생의 역량 개발에 주력하여 이를 공적 문서에 강조하면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했다(홍원표·이근

호·이은영, 2010). 미국 역시 1992년부터 연방정부에서 학습 표준을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부터 45개 주(州)에서 초중등학교 국어(english), 수학 등의 교과에 공통 성취기준을 도입하고 있다(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홈페이지, 2021.11.21. 인출).

둘째, 이들 국가에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개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균형을 피하고 있다. 즉 한국과 미국, 영국, 호주는 공통 교육과정을 개발·적용하고 있는 동시에 지역별 교육지원 체계와 개별 학교의 교과서/교재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천된다. 즉 분석대상 초중등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에서 개발되나 동시에 개별 현장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재구성되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런 점에서 각 국가의 초중등교육과정은 아동 및 청소년 세대의 문화와 사회적 가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끝으로 근접성과 편의성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 현재까지 정치와 군사,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에서 매우 긴밀한 관계로 교육 분야에서도 교과목 개설에 영향을 받아왔다(우옥영, 2006). 또 교육과정 활용 정도와 위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교육과정 개발 연구나 동향 파악에 용이하다는 이유로 한국의 초중등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미국의 교육과정 분석이 수행됐다(남민우·이운지, 2017; 방정숙·이지영·이상미 외, 2015; 이지원·김중복, 2022). 이에 미국의 교육과정을 포함하되 정보 접근이 비교적 수월한 뉴욕주의 교육과정을 선정했다.

2. 분석 준거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예비부모교육과정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준거 개발은 국내에서 개발되거나 수행된 연구를 중심으로 했다. 이는 국가별로 교육체제와 문화적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 상황과 연구 관심을 우선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분석 준거 설정은 문헌 검토를 통해 국내에서 예비부모교육의 내용 요소를 개발하거나 도출한 연구의 내용 요소 항목을 추출하는 것으로 수행됐다. 참고한 자료는 『부모교육 매뉴얼(여성가족부, 2017)』, 『대학생 예비부모교육 표준강의안(여성가족부, 2016)』과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선행연구(김정미, 2004; 김정미·강정원·박선영, 2011; 김지연, 2014; 나유미, 2012; 남민우·이운지, 2017; 노희연, 2017; 신혜영, 1997; 최충명, 2014) 등이다. 선행연구는 예비부모교육 주요 내용으로 개인의 성장과 발달, 이성 및 가족 등을 포함한 관계와 부모 역할, 개인 및 관계 내 안전 등의 요소를 공통적으로 포함했다. 연구자 2인은 협의를 거쳐 선행문헌에 포함된 예비부모교육 관련 요소들을 나열하고 유사한 개념끼리 묶은 뒤 주제별로 분류했다. 그리고 주제 간 상호 배타성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표 1>의 자기인식과 관계, 가족, 양육, 신변안전 등 5가지 내용을 유형화했다.

〈표 1〉 예비부모교육 내용 분석 준거

유형	주제	세부 내용
자기 인식	자기 이해	나의 발달, 나의 성장기 이해, 성 발달 청년의 자아 인식, 자아 성찰, 자아존중감, 긍정적 가치관
	부모됨	부모로서의 자기 이해 부모됨의 의미, 동기, 부모됨의 준비와 책임 이해
관계	사회관계	친구 관계, 우정, 사회적 관계, 다름 존중, 타인 이해, 인간 생명 존중
	이성 관계	이성 교제, 대화기술, 사랑의 의미와 유형, 성숙한 사랑 성교육, 성관계, 성문화 이해, 피임, 남성 여성 차이, 성 주체 의식, 성평등
가족	결혼	결혼관, 배우자선택, 결혼
	임신과 출산	임신, 태교, 임신 중 생활, 출산
	가족의 이해	가족 의미, 가족관계, 가족생활주기, 가족생활 설계, 가족문화, 건강가정 현대사회 가족 변화, 다양한 가족 유형 일과 가정 양립, 맞벌이, 부부 역할 분담, 건강한 부부, 건강한 결혼생활
	가족 지원	지역사회 가족/양육지원 서비스, 가정법률
양육	자녀발달과 부모 역할	인간발달, 자녀발달, 영유아 발달, 태내 발달 자녀 발달별 부모 역할, 부모책임, 양육기술
	부모-자녀 관계	양육관, 양육 태도 민주적 의사소통, 긍정적 상호작용법, 효과적 의사소통 문제행동 지도, 자녀 문제 해결, 부모-자녀 갈등관리
신변 안전	개인 내	생활문제(중독, 스트레스, 우울, 자살 등), 예방 지원
	관계 간	불평등한 관계, 데이트 폭력, 성폭력, 관계 간 문제 지원 가족 위기,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가족 문제 지원

3. 분석 과정

내용 분석은 준비, 조직화, 결과 작성의 단계를 거쳤다. 첫째, 준비단계에서는 분석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예비부모교육 선행연구와 메뉴얼 등을 검토했다. 연구자들은 2021년 6월부터 국내 예비부모교육 선행문헌을 조사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협의하여 자기 인식, 관계, 가족, 양육, 신변안전의 분석 준거를 개발했다. 연구 문제에 따라 국가별 교육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국과 미국, 영국, 호주의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교육체제, 초중등교육과정, 운영 방식 등의 자료를 수집했다.

둘째, 조직화 단계에서는 연역적 방식으로 자료를 재구성했다. 연역적 방식은 내용과 관련된 이론이나 모델,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구조화된 준거에 따라 내용을 분류하여 기준

지식이나 이론을 검증하는 것이다(Elo & Kyngas, 2008). 이때 준거로 개발된 유형이 적어도 3개에서 5개를 포함하고 있는 교과를 선정했다. 분석 준거에 해당하는 요소가 포함되더라도 효과성 측면에서 일관된 주제로 예비부모교육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교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학생들이 한 교과 내에서 관련 내용을 일관되게 반복했던 내용을 예비부모교육으로 인식했다는 국내의 연구결과를 고려한 것이다(김은설·최윤경·조혜주 외, 2010).

자체 기준에 따라 한국과 뉴욕주, 영국, 호주의 초중등교육과정에서 개발된 준거가 포함된 교과를 검토하고 3가지 이상의 유형을 포함한 교과를 선정해 분석했다. 이를테면, 한국 초중등교육과정의 국어, 사회(역사)/도덕, 수학, 과학/실과(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중학교 선택 교과(보건, 진로 등), 고등학교 전문교과 등에서 분석 준거가 포함된 교과는 실과, 가정, 보건, 도덕, 사회, 체육 등이다(교육부, 2015a; 2015b, 2018a, 2018b). 여기에서 다시 5가지 준거 유형 중 3개 이상의 준거를 포함한 “실과”와 “기술가정”, “보건”, “가정과학”을 분석했다³⁾. 뉴욕주 초중등 교과는 예술(arts), 경력 개발과 직업 연구(career development and occupational studies standards), 컴퓨터 과학과 디지털 유창성(computer science and digital fluency), 국어(english language arts), 가족 및 소비자 과학(family and consumer sciences), 보건(health), 수학(mathematics), 체육(physical education), 과학(science), 사회(social studies), 기술 교육(technology education), 외국어(world languages)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홈페이지, 2021.11.21. 인출). 이 중 분석 준거에 부합하는 교과는 “가족 및 소비자 과학(FACS)”과 “보건”이다⁴⁾. FACS에는 자기인식, 관계, 가족, 양육, 신변안전 등의 내용이, 보건 교과에는 성장과 발달 등의 자기인식, 신변안전, 타인과의 관계 내용이 포함된다. 영국 교육과정에는 핵심 과목인 국어(english)와 수학(mathematics), 과학(science) 그리고 기초 과목인 예술과 디자인(arts and design), 컴퓨터(computing), 언어(languages), 시민성(citizenship), 지리(geography), 역사(history), 음악(music), 체육(physical education), 종교교육(religious education), 성

3) 체육의 ‘건강’ 영역은 ‘자기인식’ 유형으로, 사회에서 ‘사회·문화’ 영역의 가족 구성원의 역할 변화 내용은 ‘관계’와 ‘가족’ 유형으로, 도덕에서 ‘타인과의 관계’ 영역의 가족 행복을 위한 효과 우애, 가정에서의 갈등 해결, 이성 및 동성 친구에 대한 윤리는 ‘관계’와 ‘가족’ 유형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 준거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제외됐다.

4) 체육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움직임과 운동기술, 무용, 건강 등의 내용과 게임 및 스포츠 기술과 전략,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계획 등의 관리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에도 역사 및 세계사, 지리와 경제, 시민과 정부 등의 내용을 다루며 이 중 시민 및 참여를 위한 권리에 자기와 타인의 권리 존중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준거 조건과는 맞지 않았다.

과 관계 교육(sex and relationship education), 보건 교육(health education) 등이 있다(United Kingdom Department for Education 홈페이지, 2021.10.24. 인출). 이 중 “관계와 성교육”, “보건 교육”은 기타 필수과목으로 “개인, 사회, 건강 및 경제 교육(personal, social, health and economic education)”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자기인식, 관계, 가족, 양육, 신변안전 등 대다수의 예비부모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호주 교육과정은 영어(english), 수학(mathematics), 과학(science)과 역사(history), 지리(geography), 윤리와 시민성(civics and citizenship), 경제와 비즈니스(economics and business), 디지털 기술(digital technologies), 디자인 기술(design and technologies), 건강 및 체육(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직업 연구(work studies), 예술(dance, drama, media-arts, music 등), 외국어(languages) 등으로 구성된다(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2018). 여기에서 “건강 및 체육” 교과가 정신건강 및 웰빙, 관계와 섹슈얼리티, 신변 안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⁵⁾.

끝으로, 글쓰기 및 도표화 작업과 타당도 검증을 거쳤다. 분석 결과는 시기별로 영역, 범주, 하위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했으며 시사점을 분리하여 제시했다. 연구 신뢰성 및 타당도 확보를 위해서 연구자 2인은 약 6개월 동안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협의로 도출된 결과를 재검토했다. 또 가정 및 교육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2차례 결과를 공유해 피드백을 받고, 수정한 내용으로 부모교육전문가 1인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III. 연구결과

1. 국가별 교육과정에 포함된 예비부모교육 내용

가. 한국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예비부모교육 내용은 <표 2>, <표 3>과 같이 초등학교 “실과”와 중등학교 “기술가정”, “보건”, “가정과학” 등의 교과목에 포함되어 있다. 실과는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편성되는 필수과목이며 기술가정은 중학교 필수과목, 고등학교 일반 선택과목이다. 중등학교에서 보건 과목은 일반선택, 고등학교 가정과학은 진로선택으로 개설된다. 실과와 기술가정의 목표는 ‘개인 발달과 자아정체감 형성, 배려와 돌봄을 통한 가족관

5) 호주 교육과정의 “윤리와 시민권” 영역에서 자기 및 타인과의 관계 내용이 일부 제시되어 있었으나 추가적인 내용 요소를 발견할 수 없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계 이해 및 실천으로 행복한 삶을 사랑과 결혼, 부모됨을 통한 가족 형성과 가족 간 배려와 돌봄 실천 능력 함양, 가족생활문화 형성과 발전 방법 탐색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가정과학의 목표는 '개인과 가족의 발달 이해, 긍정적 결혼생활 형성과 유지, 가족 관련 직업과 진로 개발의 역량 증진'에 있다. 보건 과목의 목표는 '일상 속에서 건강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가지고 건강 생활 기술을 실천하는 것'이다.

〈표 2〉 한국 가정과 교과와 예비부모교육 영역, 내용

시기	영역 인간발달과 가족		가정생활과 안전	
	범주 과목	발달	관계	안전
초등 5,6학년	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기 발달 특징 • 아동기 성의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와 가족의 관계 • 가족 요구 살피기와 돌봄 	-
중등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 발달의 특징 • 청소년기 성과 친구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된 가족과 건강가정 • 가족관계 • 소통,갈등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생활문제와 예방 •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과 결혼 • 부모됨의 준비 • 임신중 생활과 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돌보기 • 가족문화와 세대 간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생애주기별 안전 • 가족의 치유와 회복
고등	가정 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생애주기 및 가족생활주 기별 발달 과업 • 개인 및 가족 발달 지원 • 개인 및 가족 발달 관련 직업·진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문화와 행복한 결혼생활 • 가족법, 가족복지 서비스 • 결혼과 가족생활 관련 직업·진로 개발 	-

〈표 3〉 한국 보건 교과와 예비부모교육 영역, 내용

영역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범주 시기	성 건강	정서·정신 건강	건강 생활 기술
중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성적 발달 • 이성교제와 성역할 • 임신·출산과 피임 • 음란물과 성상품화 • 성폭력·성매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존중감 증진 • 스트레스와 과몰입 • 분노·충동 등 감정 수용과 조절 • 죽음과 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의사소통 기술 (주장, 거절, 공감하기) • 건강 의사결정 • 건강 증진 옹호 활동 (개인과 지역사회)
	고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섹슈얼리티(sexuality) • 사랑, 성적 자기결정권 • 성희롱,성폭력,성매매,성문화 • 성 매개 감염병 • 준비임신, 피임, 미혼모,저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존중감과 회복 탄력성 • 불안·우울 등의 감정 대처 • 자살과 위기 관리 • 정신 건강 문제와 편견

나. 뉴욕주

예비부모교육 관련 내용은 <표 4>처럼 “가족 및 소비자 과학(family and consumer sciences: FACS)”와 “보건 교육(health education)”에 포함되어 있다. 초등 5학년부터 8/9학년까지는 가족 및 소비자 과학 과목을 중급 수준에서 인간발달과 관계(human development and relationships)를, 고등학교에서는 9/10학년에 12학년까지 직업과 기술 교육(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차원에서 관련 내용이 전문적으로 학습된다.

<표 4> 뉴욕주 FACS의 예비부모교육 영역, 내용

시기	영역	범주	내용
초등 5학년 / 중등	인간 발달과 관계	성장 과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생애 성장과 발달 단계 • 성장과 발달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 측면 관계 및 특성 • 신체, 사회정서, 인지발달 • 영유아 돌보기
		자아개념 과 자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개념 용어를 정의, 자기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긍정적 자아개념과 부정적 자아개념의 특성 비교 • 자아개념의 변화 • 사회 및 직장 환경에서 관계 발전에 대한 첫인상 • 외모, 언어적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을 통한 개인 이미지
		도래영향, 스트레스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래와 도래 압력 용어 • 의사결정에서 가족, 동료, 미디어의 영향 • 집단 내 개인의 선택 주장법과 도래 압력의 궁 • 부정적인 측면 • 스트레스의 원인, 관리 방법 • 청소년들의 공통적인 문제
		인간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관계의 특징 • 부정적 관계의 특성 • 인간관계 강화 방안
		가족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중요성과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 가족 구조 및 변화 •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 개념 • 문화적 전통과 다양성 이해에서 가족의 역할 • 청소년의 자아 개념, 성격 및 독립성에서 가족의 영향 • 가족 기능 수행을 위한 지원 그룹, 기관 및 지역사회 조직
		육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과 가족의 복지 강화에 대한 양육 역할과 책임의 영향 • 양육 역할과 책임 • 육아 준비도와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요인
고등	인간 서비스 및 가족 연구	핵심 생애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 성장과 발달 • 뇌발달 • 태내 발달 • 아동기 • 청소년기 • 성인기 • 노인기 • 생애연구의 이슈, 사건, 진로 방향
		아동발달과 심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관찰 • 아동, 가족 및 지역사회 연결 • 장애아동 • 태내 발달 • 산후 기간의 신생아 • 영아기 • 걸음마기 • 유아기 • 학령기 등
		육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 이해 • 부모 되기 • 가족 구조 및 선택 • 아동 및 가족 돌보기 • 아동지도 • 가족관리 • 양육문제 및 가족변화 • 지역 및 가족지지 등
		유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기 교육, 서비스 • 아동 중심 환경 • 미취학아동의 성장, 발달 • 프로그램 계획, 일정 수립 • 영역별 활동 및 경험 지도 등

출처: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2008; 2009; 2010; 2011; 2018에서 재구성

가족 및 소비자 과학 과목의 목표는 '생애주기별 자신의 발달과 성장을 이해하고 가족에서 직업 세계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관계를 관리하는 역량을 기르며 미래 가족 형성과 소비자 과학 분야의 전문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뉴욕주 보건 교육의 목표는 '모든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업적 성취를 이루는 것'에 있다.

다. 영국

〈표 5〉와 같이 예비부모교육 관련 과목은 기타 필수교육으로 지정된 "개인, 사회, 건강 및 경제 교육(personal, social, health and economic education: PSHE)"이다. 이 과목은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20년부터 의무교육으로 편성됐다. PSHE는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과 영역별로 초등학생은 "관계 교육(relationship education: RE)"을, 11세 이상인 중고등학생은 "관계 및 성 교육(relationships and sex education: RSE)"을 그리고 모든 학생은 "보건 교육(health education)"을 이수한다. 관계와 성, 보건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관계 교육은 '우정, 가족관계, 다른 어린이 및 성인과의 긍정적인 관계의 기본 구성 요소와 특성을 알고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관계와 성교육의 경우, '청소년이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건강하고 양육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보건 교육의 목표는 '학생에게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이유와 방법을 제시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표 5〉 영국 PSHE의 예비부모교육 영역, 내용

시기	영역 범주	내용
초등 (Key Stage 1,2)	관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를 돌보는 가족과 사람들 가족관계의 긍정적 측면 인식, 타인에게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는 방법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정의 종류 신체 자기결정권 조언이나 도움을 얻는 대상 파악하여 요청하는 방법 에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
	보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경 건강
중등 (Key Stage 3,4)	관계 및 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 유형 가족 관계 행복과 자녀 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과 결혼 법적 지위 결혼의 중요성과 자유 결혼 외에 다른 유형의 관계 특성 및 법적 지위 위험한 관계 인식, 관계 문제 지원

시기	영역	범주	내용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동의, 성적 착취, 학대, 그루밍, 강압, 희롱, 강간, 가정 학대, 강제 결혼, 명예 기반 폭력 및 여성 할례의 개념과 관련 법률과 영향 • 성적 동의 전달, 타인 동의 인식 방법, 동의 철회 방법 및 시기
	성 건강을 포함한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존중, 동의, 충성, 신뢰, 공통된 관심사와 전망,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의 특성과 긍정적인 관계 인식법 • 성 및 관계 선택의 긍정적이든 부정적 영향.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성적 및 생식 건강 및 복지 • 도래 간 압력과 성적 압력 • 생식 능력과 성 건강, 남성/여성의 임신, 불임 • 성관계 거절, 피임 관련 지식, 임신(유산) 관련 지식, 성병 지식 • 임신과 관련된 선택사항 지식(출산, 입양, 낙태 및 의학적 법적 정보) • HIV/AIDS 등의 성병, 안전한 성관계(콘돔 사용 포함), 위험한 성행위 • 성 및 생식 기관의 건강을 위한 조언, 치료 정보
보건	월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경주기 • 월경 관련 제품의 범위
교육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신체, 성적 변화 특성 • 남성/여성의 신체적 변화와 건강

라. 호주

예비부모교육 관련 내용은 <표 6>처럼 건강 및 체육 교육(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HPE)의 “개인, 사회, 지역사회 건강(personal, social and community health)” 영역이다. 영역의 목표는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 참여에 대한 보호와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적으로 존중하는 관계를 이루는 전략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개인, 사회, 지역사회 건강은 3가지 범주 중 건강과 안전,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범주가 예비부모교육과 연관되어 있으며 각각 2~4가지의 하위범주로 구성돼 학년별로 연계 반복된다.

<표 6> 호주 HPE의 예비부모교육 영역, 내용

영역	개인, 사회, 지역사회 건강				
범주	건강, 안전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자아정체성	변화와 전환	도움 구하기	상호작용	감정이해
1~2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과 타인의 강점과 행동과 자아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 및 사회 변화, 가족과 사회의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편,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움 요청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감을 느끼고 주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을 설명하는 정서 반응 파악, 연습
3~4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 도전 및 실패와 자아정체성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변화관리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편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서의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중, 공감에 관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적 반응의 깊이와 강도의 차이

영역	개인, 사회, 지역사회의 건강				
범주	건강, 안전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자아정체성	변화와 전환	도움 구하기	상호작용	감정이해
5~6학년	• 자아정체성의 사람과 장소에 따른 영향	• 사춘기 변화와 자기관리 자원과 전략	• 지역자원과 건강, 안전, 복지자원 활용방법	• 관계 맺기 및 관리 기술	• 행동과 관계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영향
7~8학년	• 정체성 전환 및 변화의 영향	• 성장에 따른 개인적, 신체적, 사회적 변화 관리 전략	• 자신, 타인을 위해 도움을 구하는 전략 실제 및 적용	• 관계 이점 조사자신/타인의 건강과 복지영향	• 감정에 영향 미치는 요인, 공감과 감수성을 보여주는 전략
9~10학년	• 정체성 요인 평가, 개인이 타인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 관계에 대한 변화 및 전환의 영향	• 자신/타인의 건강, 안전, 복지를 관리하는 계획, 연습, 평가	• 공감과 윤리적 의사결정이 존중하는 관계에 미치는 연관성	• 상황에 따른 적절한 정서적 반응, 다양한 반응 결과

2. 국가별 교육과정에 포함된 예비부모교육 내용 분석

가. 편성 시기

교육과정에 포함된 예비부모교육의 편성 시기는 <표 7>과 같이 국가별 교육체제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국과 미국 뉴욕주의 경우 예비부모교육에 해당하는 내용은 성(性)적 발달이 시작되는 11세 전후에 제공된다. 한국은 가정과 교과(실과, 기술가정 등)를 통해 인간발달과 가족, 신변안전 등의 내용을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편성하여 고등학교까지 같은 영역에서 심화 확장된 내용으로 편성한다. 초중등학교에서 실과와 기술가정 과목이 공통 필수 과목인 점을 고려하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까지 대다수 학생은 예비부모교육에 해당하는 내용을 접할 수 있다. 한국 고등학교에서는 일반선택으로 기술가정과 진로선택으로 가정과학이 개설된다. 또한 2010년부터 중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재편성된 보건 역시 성교육 및 의사소통 증진 교육 등의 예비부모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중고등학생들에게 예비부모교육의 표면적인 기회는 다수 주어질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은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가족 및 소비자 과학 교과를 편성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중등학교에서는 인간발달과 관계를, 고등학교에서는 인간 서비스 및 가족 연구를 진로 선택으로 학습한다. 인간발달과 관계 영역의 학습은 5학년에서부터 선택적으로 실시된다. 뉴욕주의 경우 보건 교과를 가족 및 소비자 과학, 체육 등 세 교과를 영역별로 조직한 학습 표준안에 따라 운영한다⁶⁾. 이처럼 한국과 미국의 경우 예비부모교육 관련 내용이 편성되는 시기가 유사하며 고등학교에서

진로 선택으로 관련 내용이 전문화되는 부분 역시 공통점이 있다.

영국과 호주에서는 교육과정 전체에서 예비부모교육 내용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영국에서 의무 이수 과목인 개인, 사회, 건강, 경제 교육 과목은 관계 교육, 관계와 성 교육, 보건 교육으로 구성되며 초등학교(primary)와 중등학교(secondary)를 기준으로 내용이 달라진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관계 교육이, 중학교에서는 관계와 성 교육이 필수이다. 보건 교육은 초중등학교 모두 성적 성숙과 신체·정신 건강 내용이 제시되어 있어 전체 학교급에서 유사한 내용이 반복된다. 호주 역시 10학년까지의 의무교육 동안 건강 및 체육 교과를 통해 부모교육 관련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시한다. 호주는 다른 국가와 달리 교과 내 가정 및 관계 교육 내용을 건강과 체육 교육 속에 통합하여 다룬다. 전체적인 교육과정은 하나의 매트릭스로 조직되어 학년별로 연계 확장되고 있다.

〈표 7〉 국가별 예비부모교육과정 편성 시기와 교과 내 하위영역 비교

연령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시기	초등				중등				고등			
한국					인간발달과 가족 / 가정생활과 안전 생활 속에서 건강한 선택							
미국					인간발달과 관계 (human development and relationships)				인간 서비스 및 가족 연구 (human service and family studies)			
	개인 보건과 건강관리(personal health and fitness)											
영국	관계 교육 (relationships education)				관계와 성 교육 (relationships and sex education)							
	보건 교육(health education)											
호주	건강, 안전(being healthy, safe and active) 의사소통과 상호작용(communicating and interacting for health and wellbeing)											

6) 뉴욕주는 학생의 생활 기술과 유능함, 자신감, 책임감을 증진하여 개인의 생활과 지역사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FACS”와 “보건”, “체육” 교과를 별도로 묶어 초등(elementary), 중등(intermediate), 고등(commencement)의 3단계로 확대되면서 연계성을 갖춘 『Learning standards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and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at three levels』을 개발 배포하고 있다(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홈페이지, 2021.11.21. 인출).

나. 내용 범위

분석 근거에 따라 내용을 구조화하면 국가별 교육과정에 포함된 예비부모교육 내용의 범위를 알 수 있다. <표 8>에 의하면 첫째, '자기인식' 유형의 자기 이해 주제는 모든 국가에서 공통된다. 즉 학교의 예비부모교육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반복되는 내용은 부모가 되기 전 개인의 발달에 관한 것이다. 특히 성적 성숙이 시작되는 10~11세의 자기 이해는 대다수 교육과정에서 예비부모교육의 시작 단계로 다루는 주제이다. 그러나 부모됨에 대한 내용은 호주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으며, 한국 교육과정에는 고등학교 시기부터 제시된다.

둘째, '가족' 유형에는 가족 이해에 해당하는 가족관계, 가족의 중요성, 가족관계에서의 역할, 관계 증진 등이 모든 국가의 교육과정에서 동시에 제시된다. 한국과 미국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영국과 호주는 초등학교 전 학년에서 다루어진다. 결혼과 배우자선택 등의 내용은 수집된 한국과 호주의 교육과정에서 비교적 적다. 이 내용은 미국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와 영국 초등학교에서 제시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고등학교부터 시작되고 호주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또 임신과 출산을 통한 가족 형성 내용은 호주 학교 교육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족 기능 지원을 위한 정보는 한국과 영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제시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국가의 교육과정에서 가족관계 속의 부부관계를 언급하고 있으나 긍정적 부부관계 맺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셋째, '관계' 유형은 한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호주에서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관계 교육을 다룬다. 관계 교육은 일차적 관계인 가족뿐만 아니라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사회적 기술을 통해 관계를 관리하는 것으로 친구와 기타 성인, 지역사회 내 관계를 모두 포함한다. 영국과 호주 교육과정에는 이러한 관계 교육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꾸준히 반복 제시된다. 성 관련 내용은 중등학교부터 제공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미국 정규 교과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호주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제시된다.

넷째, 개인 및 관계 간 위험과 위기를 포함하는 '신변안전'에 대한 부분은 한국 이외의 모든 국가에서 초등학생 시기부터 편성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가족,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알고 이에 대처하거나 예방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한국의 경우 중학교 교육과정부터 안전에 대한 개인생활문제를 편성하고 고등학교에서는 가정 내 폭력 문제를 제시한다.

다섯째, 자녀발달별 부모역할과 부모-자녀관계를 다루는 '양육'은 미국과 영국에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제시되는 반면, 한국은 고등학교에 집중되고 호주는 관련 내용이 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양육기술로 볼 수 있는 부모-자녀 관계의 의사소통 기술과 행동 지도 등

은 한국 외의 국가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표 8〉 국가별 예비부모교육 내용 범위

유형	주제	한국	미국	영국	호주
자기 인식	자기 이해	초5 중 고	중(초5) 고	초 중(고)	초3 중
	부모됨		중(초5) 고(-)	중(고)	
관계	사회관계	중 고	중(초5)	초 중(고)	초 중
	이성관계	중 고		중(고)	초3 중
가족	결혼		중(초5) 고(-)	초 중(고)	
	임신과 출산	중 고	고(-)	중(고)	
	가족의 이해	초5 중 고	중(초5) 고(-)	초 중(고)	초
	가족 지원		고(-) 중(초5) 고(-)	중(고)	초 중
양육	발달별 부모역할		중(초5) 고(-)	초 중(고)	
	부모-자녀관계	중 고	고(-)		
신변 안전	개인생활문제, 예방	중 고	중(초5)	초 중(고)	초 중
	타인 간 폭력, 예방	중 고	중(초5)	초 중(고)	초 중
	가족 간 폭력, 예방	중 고		초 중(고)	

주: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이 있을 경우, 각각 초, 중, 고로 표시
 (-)표시는 진로 선택 과목의 내용일 경우 별도 표시, 숫자(예: 초5)는 시작 학년을 표시

IV. 논의 및 결론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예비부모교육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내외 초중등교육과정에 포함된 예비부모교육 내용을 추출하고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을 논의했다. 첫째, 조사된 국가별 교육과정에는 모두 예비부모교육의 기초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여러 교과와 학년에서 반복되고 있다. 한국 가정과 교과(실과, 기술가정, 가정과학)와 보건, 미국의 가족 및 소비자 과학, 영국의 개인, 사회, 건강 및 경제 교육, 호주의 건강 및 신체 교육에서 예비부모교육에 관한 내용이 확인됐다. 국외 교육과정 내의 예비부모교육 내용을 참고하면,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정에는 예비부모교육의 기초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러 교과와 학년에서 반복되고 있어 예비부모교육으로 활용하기 충분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 가정과 교육과정과 보건 교과가 학교마다 선택적으로 개설된다는 점은 지속적인 예비부모교육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초중등학교에서 실과와 기술가정은 의무교육 기간의

공통과목으로 이수 되나 고등학교에서 학교마다 교과목 개설과 선택에 차이가 있다. 이를 테면, 선택과목인 보건 교과는 2010년 이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재편성되었으나 입시 위주의 중고등학교에서 채택하는 경우가 드물다(박현주·정혜선·하영미 외, 2010). 인간발 달과 결혼, 가족복지에 특화된 가정과학 교과 역시 진로 선택과목이므로 학습의 기회가 많 지 않다. 다만 선택과목인 고등학교 기술가정은 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 인식되어 다수 고 등학교에서 개설·선택함에 따라(권유진·임윤진, 2020) 예비부모교육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예비부모교육 관련 내용이 여러 교과와 학년에서 반복해서 제시되는 기회와 여건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비부모교육 내용에 자신을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하는 전략 등의 기초 인성교육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때, 국외에서 일찍부터 관계 교육을 편성하고 있는 점은 시사적이다. 특히 영국과 호주 초중등교육과정에는 초등학교부터 건강하고 안전 하게 관계를 맺는 방식이 반복해서 제시된다. 관계 교육은 개인과 타인의 경계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려는 서양의 개인주의적 문화가 반영된 것으로(Keddie & Ollis, 2021), 최근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개방적 성문화, 10대 임신, 청소년의 개인주의적 성향 등에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다. 나아가 이는 자신과 타인, 향후 배우자와 가족 간 관계적 어려움과 가족 및 아동 폭력에도 민감한 시각과 대처 역량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 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도덕 및 사회, 체육, 생활과 윤리 등의 과목에서 이상의 내용이 포함되나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더 이른 시기부터 편성될 필요가 있다. 비 교과를 통해 실시되는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을 활용할 수 있지만(교육부, 2016), 중 고등학교에서는 입시 위주의 학교 분위기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정규 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

둘째, 대다수 국가는 (성)발달과 가족, 안전 등의 예비부모교육 관련 내용을 초등학교부 터 학교급별로 연계 확장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역시 유사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의 교육 내용은 짧은 시기에 많은 내용이 제공되고 있어 궁극적인 교육 목적 성취에 어려 움을 줄 소지가 있다. 영국과 호주의 예비부모교육 관련 내용 범위를 살펴보면, 학년별로 몇 가지 내용만이 확장된다. 영국은 가족 특성과 안전, 성(性)적 변화 등 유사한 내용이 초 등학교부터 반복되고 있으며 호주 역시 같은 하위범주 내에서 동일 내용이 방법만 다르게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학년별로 내용 범위가 확장되면서 점차 알아 야 할 내용이 많아지는 특성이 있다. 예컨대, 초등학교 2년 동안 개인 발달과 가족관계만 을 다루는 것에서 중학교에서는 청소년기 또래관계, 생활문제, 가정폭력의 내용이, 고등학 교에서는 사랑과 결혼, 임신, 출산, 생애발달, 자녀돌봄, 가족회복 등이 추가된다.

이러한 내용 확대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도 양적 부담을 줄 수 있다(이근호·이병천·가은아 외, 2015; 진의남·유창완·장근주 외, 2015). 우리나라의 가정과 교육과정은 경험을 통해 학생의 실천적문제해결능력, 생활자립능력, 관계형성능력의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역량은 실제 삶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이나 사회적 상황 판단 등 학생이 사회적 삶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포괄하는 것이므로(소경희, 2007), 가정 교육과정에 너무 많은 내용이 포함될 경우 내면적 태도와 기능 변화를 끌어내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내용 범주를 단순화하되 깊이를 심화하거나 다양한 학습 방법을 통한 경험의 질적 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정에 포함된 예비부모교육 내용은 학교급간 유사한 내용으로 연계 확장되어 있어 편성 시기와 내용 범위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관계 안전 등은 시기를 앞당겨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편성할 것과 학생의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두어 내용을 축소하고 핵심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깊이 있게 교육할 것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선행연구(민용성·정영근·이주연 외, 2018; 배주경·김종윤·김상범 외, 2019; 주형미·박진용·김상범 외, 2021; 한혜정·이승미·민용성 외, 2020)는 구체적인 역량 개발 중심의 교육과정 개정과 내용 수준 재설정, 학습량 축소를 지적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성취수준 설정과 타 교과와의 연계 강화를 언급하고 있다. 또 기술가정의 경우 다양한 모 학문이 혼합된 형식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점과 실과 영역에서는 학습량에 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한혜정·이승미·민용성 외, 2020)해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유사한 점이 확인된다. 이에 2022년 개정 실과 및 기술가정 교육과정은 '인간발달과 주도적 삶'으로 영역이 축소되고 내용 요소가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로 분리되어(교육부, 2022), 교육과정 내 예비부모교육의 실효성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후속 연구는 문서화 된 교육과정에만 초점을 둔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에서의 실제 운영과 활용 여부를 포괄한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또 국가별 비교과 프로그램 분석 연구로 확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대학교는 유형 및 전공, 교양 체계에 따라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도 자율적이라는 점에서 연구 범위에서 제외됐으므로 다른 측면에서 재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가별 교과 범위가 넓지 않아 연구방법을 다양화하기 어려웠으므로 대상 국가를 확대하여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학교 교육을 통한 예비부모교육의 가능성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며 사회적으로도 필요하다(김은설·최윤경·조혜주 외, 2010; 남민우·이운지, 2017; 정순화, 2017; 지은혜, 2019; Dudleya, Crowderb, & Montgomery, 2014). 한국 교육과정 내 예비부모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장기적이고 일관된 예비부모교육을 위해 학년 및 교과를 포괄하는 공통의 목표, 내용, 성취기준 개발이 필요하다. 네 국가의 교육과정에는 예비부모교육 과목은 없지만 여러 교과에 걸쳐 부모됨의 지식을 얻고 관점을 형성할 기회가 있다. 그럼에도 국가별 초중고등학교에서 예비부모교육 관련 교과는 그 자체로 고유한 학습 목표와 성취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명확하게 예비부모교육이 시행되었다고 보기도, 그렇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개별 교과들을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기초적 내용으로 분류하여 각 내용이 어떤 유형의 예비부모교육인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뉴욕주에서 FACS와 보건, 체육 교과를 묶어 학생 개인 및 지역사회 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개발한 학습표준안이나 영국에서 보건과 성 및 관계 교육을 기타 필수과목인 PSHE로 제시한 것을 참고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정도 예비부모교육 차원에서 유사한 목적을 가진 몇 개의 교과를 묶거나 세부내용으로 규정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실과 교과에서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의 성취기준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 특징과 개인차에 따라 자신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발달하는 조건을 설명’하는 것이다(교육부, 2018a). 동시에 이 내용은 본 연구의 준거 중 “자기인식” 유형의 예비부모교육 내용으로 분류된다. 즉 별도의 공통 예비부모교육 과정이 개발된다면, 학생이 각 교과를 배우며 도달한 예비부모교육 내용 성취 정도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공통의 목표, 내용, 성취기준 개발은 학교 교육 시기별로 이루어지는 예비부모교육의 지속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또 이는 학교밖에서도 활용가능하다. 현재 학교 밖의 예비부모교육은 유아교육기관, 건강가족센터, 종교단체 등에서 각각 이루어진다(김은설·최윤경·조혜주 외, 2010). 하나의 목표와 내용, 성취기준 등이 공통으로 개발된다면 예비부모교육 운영이 별도로 이루어지더라도 같은 내용이 전달될 수 있어 효과적인 것이다. 또 각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예비부모교육을 서로 교차하여 이수하더라도 내용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부처 간 협력과 협업을 위한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잠재적 예비부모교육을 위해 부모의 기능적 역할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에서 건강한 관계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이 준비되어야 한다. 해외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예비부모교육 내용은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는 기능적 역할보다는 자기이해와 존중, 보호, 타인과의 안전한 관계 및 상호작용에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예비부모교육을 부모가 아이를 낳고 돌보는 역할을 배우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결혼과 가족 구성 이전에 필요한 건강한 상호관계 형성으로 보는 것이다. 또 예비부모교육의 방향이 개인의 인격적 성숙을 통한 인성 함양과 자아 이해, 가족관계 증진에 있으므로(김은설·최윤경·조혜주 외, 2010; 남민우·이운지, 2017; 정순화 2017),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가족과 아동에 대한 존중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뤄지는 예비부모교육은 아직 부모가 되는 것과 거리가 먼 청소년들에게 동기부여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교육과정 내 예비부모교육은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개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이 더 적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었지만, 도덕과 사회, 윤리 등의 과목은 이러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나아가 광범위한 예비부모교육으로 이뤄지는 부모와 자녀, 부부, 이성 간의 건강한 관계 형성 교육은 최근 아동학대, 가정폭력, 테이트 폭력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전체 학대 발생 사례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보건복지부, 2021)은 부모 및 예비부모 시기에 아동을 존중하고 폭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향후 예비부모교육은 자기 이해와 존중,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 형성 등 인성적 측면을 강화하는 정책에 기반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초중등학교에서 장기적인 예비부모교육 적용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연구가 요구된다. 대표적으로 가정과 교육과정은 공통교과인 초등학교 실과와 중학교 기술가정 과목에서 ‘인간 발달과 주도적 삶’ 영역으로 자기 이해와 (성적) 발달, 가족관계, 폭력, 타인과의 관계 등의 내용이, 선택교과인 고등학교 기술가정은 ‘인간과 성장하는 관계’ 영역에서 성 발달을 인간 개인과 가족, 사회 속에서 조명하도록 내용 요소가 수정됐다. 전반적으로 지식 위주의 학습 내용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연결되고 기술과 태도 측면을 강화하는 교수-학습법이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내 예비부모교육 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과와 실행 과정과 성과를 추적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건강한 가족 구성과 유지를 위한 노력으로 초중등학교에서의 자연스럽고 포괄적인 예비부모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여 교육과정을 다각도에서 활용하려는 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연구 여건과 지원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5a).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
- 교육부(2015b). 실과(기술·가정)/정보과 교육과정.
- 교육부(2016).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교육부(2018a). 초등학교 교육과정.
- 교육부(2018b). 중학교 교육과정.
- 교육부(2022). 초중등학교 학교급별 교육과정 시안(행정예고).
- 권유진·임운진(2020). 고등학교 기술·가정과 선택과목 운영 실태 및 요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2(2), 179-192.
- 김수경(2018). 고등학생의 예비부모교육 실태 및 요구도 분석.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설·최윤경·조혜주(2012). 고등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의 현황과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 6(1), 1-19.
- 김은설·최윤경·조혜주·김선화(2010). 예비부모교육 실태와 내실화 방안 연구(연구보고 2010-05).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자·유미숙(2004). 부모역할지능이 유아의 자아개념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9(2), 5-20.
- 김정미(2004).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적용 효과.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미·강정원·박선영(2011).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린부모교육연구, 3(2), 1-19.
- 김지연(2014). Adler 개인심리학에 근거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목표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나유미(2012). 예비부모의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충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민우·이운지(2017). 예비부모교육 관련 중등 교육과정 분석 및 교사·학생 인식 조사 연구. 교육연구논총, 38(4), 139-160.
- 노희연(2017). 고등학생을 위한 가정 교과 기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수민·이연선·이소민·정계숙(2014). 부모교육프로그램 실태 비교에 관한 질적 연구: 생애, 레지오, 몬테소리,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34, 365-397.
- 민용성·정영근·이주연·노은희·신호재·양성현·유창완·이경언·김자영·곽영순·전재호·이효인·박지만(2018). 교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연구보고 CRC

- 2018-2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선미(2016). 정부 개발 부모교육 자료의 시대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현주·정혜선·하영미·권은하·정유하·김영숙(2010). 학교 보건교육 정착방안.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
- 방정숙·이지영·이상미·박영은·김수경·최인영·선우진(2015). 한국·중국·일본·미국의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비교·분석: 도형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18(3), 311-334.
- 배주경·김종윤·김상범·배화순·조윤동·김현정·조기희·장근주·박소영·이승미·김혜숙(2019).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 초등학교 3~4학년을 중심으로(연구보고 RRC 2019-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보건복지부(2021). 2020 아동학대 주요 통계.
- 소경희(2007).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본 “역량(competency)”의 의미와 교육과정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25(3), 1-21.
- 신혜영(1997).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2016). 대학생 부모교육 강의 사례집.
- 여성가족부(2017). 부모교육 매뉴얼 총론.
- 우옥영(2006). 한국과 미국의 학교보건교육정책 비교 연구. 한국교육연구, 11(1), 47-83.
- 윤미경·민선혜·김미숙·배지희(2019). 부모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어머니들의 경험과 사후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육아지원연구, 14(3), 77-107.
- 이경하·서소정(2009). 영아 및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 효능감, 양육스트레스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3), 87-102.
- 이근호·이병천·가은아·이주연·김현숙(2015). 국제 비교를 통한 국가 교육과정 적용체제 개선(연구보고 RRC 2015-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은영(2016). 실과 교과 역량과 핵심 개념 중심의 가족 영역 평가 및 내용 구성 방향. 실과교육연구, 22(1), 77-97.
- 이지원·김중복(2022).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초등학교 과학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제시된 빛 관련 개념에 관한 비교 연구. 초등과학교육, 41(2), 283-294.
- 정순화(2017). 가정과 교육에서의 부모교육: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9(4), 15-30.
- 주형미·박진용·김상범·김현미·변희현·임운진·서지영·이경언·박소영·배주경·정윤미(2021). 초·중학교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탐색: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연구보고 RRC 2021-6-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지은혜(2019). 기술·가정교과를 이수한 고등학생의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이해.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의남·유창완·장근주·이영미·박소영·양윤정·백경선·류상희·박정준(2015).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실행 방안: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연구보고 RRC 2015-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최충명(2014). 학교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청소년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혜정·이승미·민용성·이주연·이수정·노은희·주형미·변희현·김현미·김광규·배화순·김상범·유금복·서지영·장근주·임윤진·권유진·이은경·윤영순·최성희(2020).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설정 연구(연구보고 CRC 2020-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홍원표·이근호·이은영(2010). 외국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현장적용 사례연구: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연구보고 RRC 2010-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Amin, R., & Sato, T. (2004). Impact of a school-based comprehensive program for pregnant teens on their contraceptive use, future contraceptive intention, and desire for more children. *Journal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1*(1), 39-47.
-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2015).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sequence of content F-10 strand): Personal, social and community health. <https://www.australiancurriculum.edu.au/> (2021.10.24. 인출)
-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2018). Australian curriculum 8.4. <https://www.australiancurriculum.edu.au/> (2021.10.24. 인출)
-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n.d.). Common core state standards. <http://www.cde.ca.gov/re/cc/index.asp> (2021.11.21. 인출)
- Dudleya, J., Crowderb, A., & Montgomery, T. R. (2014). Back to basics: How young mothers learn about sex and sexuality. *Sex Education, 14*(3), 272-285.
- Ekeng, N. E., Ekanem, S. A., & Esien, O. E. (2014). Teenage pregnancy and education in Nigeria: A philo-sociological management strategy. *Journal of Educational and Social Research, 4*(3), 41-47.
- Elo, S., & Kyngas, H. (2008).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proces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2*(1), 107-115.
- Georgiana, R. (1997). Enhancing teen parenting skills through practical experiences in a public school child care setting. (ED414065). ERIC. <http://lps3.files.eric.ed.gov/libproxy.cu.ac.kr/fulltext/ED414065.pdf>
- Howe, S. L., & Zimmer-Gembeck, M. J. (2022). Person-centered maternal emotion socialization and child temperament: Relations to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nd anxiety an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31*, 2644-2659.

- Keddie, A., & Ollis, D. (2021). Context "matters": The take up of respectful relationships education in two primary schools. *Australian Educational Researcher*, 48(2), 211-225.
-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2008). Lifespan studies core. <http://www.nysed.gov/> (2021.11.21. 인출)
-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2009). Child development and psychology. <http://www.nysed.gov/> (2021.11.21. 인출)
-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2010). Early childhood education. <http://www.nysed.gov/> (2021.11.21. 인출)
-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2011). Parenting. <http://www.nysed.gov/> (2021.11.21. 인출)
-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2018). Human development and relationships. <http://www.nysed.gov/> (2021.11.21. 인출)
-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n.d.). Learning standards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and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at three levels. <http://www.nysed.gov/> (2021.11.21. 인출)
-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n.d.). New York state education standards and curriculum, <http://www.nysed.gov/> (2021.11.21. 인출)
- Sahlberg, P. (2010). Rethinking accountability in a knowledge society. *Journal of Educational Change*, 11(1), 45-61.
- Salami, M. O. (2017). Sex education and teenage pregnancy in the Niger Delta: Implications for secondary school biology curriculum in Nigeria. *World Journal of Education*, 5(3), 73-78.
- Savage, G. C., & O'Connor, K. (2015). National agendas in global times: Curriculum reforms in Australia and the USA since the 1980s. *Journal of Education Policy*, 30(5), 609-630.
- Sherr, L., Skar, A. M. S., Clucas, C., Tetzchner, S. V., & Hundeide, K. (2014). Evaluation of the international child development programme (ICDP) as a community-wide parenting programme.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1(1), 1-17.
- United Kingdom Department for Education. (n.d.)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https://www.gov.uk/> (2021.10.24. 인출)

- 논문접수 11월 1일 / 수정본 접수 11월 30일 / 게재 승인 12월 9일
- 교신저자: 윤재희, 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jhyoon463@yu.ac.kr

Abstract

Content analysis of pre-parent education included in the curricula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Focusing on South Korea, USA, the UK, and Australia

Jinju Han and Jaehui Yoon

This study aims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 contents of pre-parent education included in the Korean school curriculum by examining the contents of the curricula of domestic and overseas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Content analysis results of the curricula of schools in South Korea, USA, the UK and Australia are as follows. First, each country's curriculum included subjects such as development, family, relationships, sex education, and health. Second, contents related to the education of prospective parents in each country's curriculum are repeated from elementary school to middle and high schools. Third, the category of pre-parent education commonly identified in each country's curriculum includes "self-understanding", "family understanding", and "inter-relationship violence and prevention". The research results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including the content of pre-parent education in the curricula of Korea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Furth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such pre-parent education, we suggest coordinating the timing of the arrangement of some contents and improving the contents' scope.

Keywords: pre-parent education, content analysis of the national curriculum, Korean home-economic curriculum, curricula of domestic and overseas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